

(밑줄 그은 경전 구절과 말씀을 읽고 아래 각 질문에 대하여 여러분의 의견을 적는다)

로마서 6장. 침례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망, 매장, 그리고 부활을 상징하는 것이다. 그것은 또한 우리가 구주를 따르겠다고 성약을 맺으면서 우리 죄의 상징적인 사망과 매장 그리고 다시 태어남을 나타내는 것이다. (35~40분)

헨리 비 아이어링 회장이 십이사도 정원회에서 봉사했을 때 했던 다음 말씀을 읽는다.

“우리 모두는 살아오는 동안 과거보다 더 좋은 상태로, 더 높은 상태로 가야겠다는 느낌을 가졌던 때가 있었음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느낌은 인생에서 ‘불쌍하다는 느낌’보다는 좋은 무엇인가가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 때와 거의 동시에 올 수도 있습니다. 슬프게도, 우리에게는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 생각이란 이러한 것입니다. 어쩌면 그 불쌍한 느낌이 인생인 것 같습니다. 어쩌면 제가 그 불쌍한 느낌을 가지고 사는 방법을 배워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마치 모든 이들이 그러한 느낌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

“그러나 제가 잘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 심지어는 가장 절망을 느꼈고 또 가장 불쌍한 사람들도 여러분에게 그들 자신도 인생에서 한 번쯤은 무엇인가 더 좋고 또 더 높은 것을 가져야겠다는, 한 차원 높은 생각을 가졌던 때를 기억할 수가 있었다고 말할 것입니다” (헨리 비 아이어링, 성약[대학생 연령의 청년들을 위한 교회 교육 기구 노변의 모임, 1996년 9월 6일])

아이어링 장로가 묘사한 것과 같은 절망감이나 좌절감을 경험하였던 때를 생각해 본다. 소망을 찾기 위해 여러분은 무엇을 하였습니까?

다음 성구를 읽고 또 그 구절이 주는 위안과 소망을 찾아 적어본다. 이사야 40:30~31; 모사이야서 4:6~7; 모로나이서 10:32~33.

• 어떤 이의 권능으로 우리는 온전하게 될 수 있고 또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가?

바울이 편지를 적어 보낸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모세의 율법을 행하고 있었으며, 또 속죄가 모세의 율법을 이루었다는 점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들은 율법을 통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를 극복할 수 있다는 점을 그들에게 가르쳐 줄 누군가가 필요했다.

로마서 6장 8~23절을 읽고 바울이 죄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가 죄의 결과를 극복하도록 도와줄 분이 누구인지에 대해 가르쳤던 내용을 찾아 본다.

아이어링 회장이 계속해서 한 말씀을 읽는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여러분이 한 차원 높은 것을 느끼도록 많은 일을 하십니다. 그분께서는 높이,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정도로 높이 일어서는, 충분하지 않은 우리 힘만으로도 아니라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권능을 통하여 그렇게 하는 방법을 마련하셨습니다. ...”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구주와, 우리에게 인생의 목적을 가르쳐주고 또 우리에게 계명을 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분과 맺을 수 있는 성약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성약과 더불어 그분께서는 의식을 마련하여 주셨는데, 그 의식을 통해 그분께서 행하시겠다고 약속하시고 또 성약하신 것을 그분께서 나타내 보일 수가

있으며, 또한 우리가 행하겠다고 약속하고 또 성약한 것을 우리도 나타내 보일 수가 있습니다.” (헨리 비 아이어링, 성약, 1쪽)

우리가 거룩한 성약을 맺고 지킬 때 우리의 생활에서 속죄의 권능을 받게 된다.

로마서 6장 1~2절은 우리에게 죄에서 돌이킬 것을 가르치고 있다. 이렇게 하도록 해주는 초기의 의식과 성약을 찾아보면서 3~7절을 읽는다.

침례는 우리가 자신의 죄와 우리의 죄에 찬 본성을 “물속에 묻겠다는” 성약을 맺는 의식이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통하여 우리의 죄를 “뺏는” 권능에 이를 수 있는 방법이다.

침례는 무엇을 상징하는가? (교리와 성약 128:12~13 참조)

• 침례가 우리의 죄를 “묻거나” 또는 “버리겠다”고 성약을 맺는 의식이라면, 우리가 침수로써 침례를 받는 것이 왜 중요한가?

• 침례는 또한 그리스도의 생활에서 어떤 사건들을 상징하고 있는가? (3-5절 참조)

• 우리가 죄에 찬 자신을 버리고 침례를 받겠다고 선택을 한다면, 우리의 생활이 어떻게 더욱 좋아질 것인가?

• 교리와 성약 20편 68~69절과 모사이야서 18장 8~10절을 읽는다. 이 구절에 따르면, 우리가 침례시에 맺는 약속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침례 성약이 우리가 죄에서 깨끗하게 될 수 있다는 점을 상징하지만 침례가 실제로 우리의 죄를 씻어버리는 것은 아니다. 침례는 우리가 깨끗하고 되고 또 새로운 생활을 하겠다는 결심을 하는 의식이며, 우리가 성신의 은사를 받도록 준비를 하는 의식이다. 우리가 실제로 죄로부터 깨끗하게 되는 것은 성신이 갖고 있는 깨끗하게 하는 권능을 통해서이다.

십이사도 정원회의 일원이었던 브루스 알 맥콩키 장로의 다음 말씀이 도움이 될 수 있다.

“죄는 침례의 물로 용서를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비유적으로 말했던 것처럼 성신을 받을 때 용서된다. 육에 속한 성질을 없애주고 또 우리를 의의 상태로 인도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성령이다. 우리가 실제로 성신과 함께 하고 또 그와 동반할 때 우리는 깨끗하게 된다. 그 후에야 죄와 찌꺼기, 그리고 악한 것이 마치 불에 타는 것처럼 우리 영혼 가운데서 태워져 없어지게 된다.” (브루스 알 맥콩키, 신앙개조의 새로운 증인, 290쪽; 니파이후서 31:17; 모로나이서 6:4; 8:25~26 참조)